

100년전 함성 가슴속 깊이

순창군, 3·1절 기념식 거행... 지역 출신 독립의사 활동상 보고도 가져

순창군이 제100주년 3.1절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갖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지난 1일 향토회관에서 황숙주 순창군수를 비롯해 기관 단체장, 군민, 학생, 군인 등 각계각층 500여명이 모여 독립을 위해 몸 바친 순국선열들의 100년전 그날의 함성을 가슴속 깊이 새겼다.

행사는 3.1절 동영상을 시작으로, 독립선언서 낭독, 기념사, 만세 삼창 등으로 진행했다. 특히 100주년을 맞아 순창군에 있었던 3.1 운동 당시의 모습과 순창 출신 독립의사 활동상을 보고하는 순서도 가졌다.

황 군수는 추모사를 통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항일투쟁을 펼쳤던 독립운동가에게 한없는 존경과 추모의 마



순창군이 제100주년 3.1절 기념행사를 역사적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음을 바친다”면서 “8인 의사들은 광인(狂人)으로까지 행세하면서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펼쳤다. 우리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애국충정의 마음을 후손들이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참석한 독립운동가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도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제100주년 3.1절 기념식 개최

임실군은 제100주년 3·1절을 맞아 임실을 이도리 3·1동산에서 심민 임실군수의 분향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독립선언서 낭독, 기념사, 만세삼창 등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심민 군수를 비롯해 신대용 의장과 독립유공자후손, 기관사회단체장, 공무원, 군인, 주민,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선열들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심민 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임실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자주독립과 구국의지가 어느 지역보다 높았던 곳으로 전북에서 가장 많은 146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지역이다”고 말했다.

이어 “3·1운동 33인중 한분이신 박준승 선생을 비롯해 이석용장군, 한영

태 열사 등 수많은 애국 열사들이 자신을 희생하여 국가와 지역을 위해 노력하신 것이 있었으므로 후손인 우리들이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계승 발전시켜 임실 발전에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념식이 끝난 후 독립유공자 후손에 ‘독립유공자 명패달아드리기’ 행사를 임실을 갈마리(독립유공자 후손 노종택)에서 진행하고 후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농촌빈집, 주거·문화공간 희망하우스로 탈바꿈

순창군이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새롭게 리모델링한 후 귀농·귀촌인, 문화·예술 등 다채로운 지역활동가들에게 무상 임대해주는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올해 사업비 2억 2천만원을 투입해 11동의 빈집을 새롭게 보수하여 주거공간과 문화·예술 창작활동 공간으로 재탄생 시킬 계획이다. 군은 올해 빈집재생을 위한 보수비용 지원확대 및 임대 활용 방식 등을 대폭 개선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지원액은 지난해 동당 1200만원에서 올해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하며, 소유자는 지원액의 5%이상 부담하면 된다. 임대방식은 주변시세의 전월세 반값 의무임대 조건에서 5년간 무상임대료로 바뀌는 등 귀농·귀촌인, 주거취약계층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단순 주거형태 지원사업에서 탈피해, 올해는 주거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지역내 문

화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활동가에게 비영리 운영 조건으로 무상임대할 방침이다. 이에 공방·화방 등으로 활용이 용이해져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공간으로도 변모를 꾀할 것으로 보여 지역에 새로운 바람이 될 전망이다.

군은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임대 희망자 모집에 나서며, 3월중에는 대상주택을 선정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전북도 일자리창출 평가 최우수

남원시가 전북도에서 2018년 일자리창출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상사범비 1억원을 받았다.

평가는 2018년도 고용지표, 취업지원 실적, 일자리창출 노력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일자리발굴 우수사례 등

시·군 일자리창출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군부대와의 협약을 통해 상근예비역의 취업을 지원하는 희망심어주기 일자리 지원사업, 천연물 화장품 원료를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동력을 확보한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

미취업자의 일자리지원 기반을 마련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고등학생의 기업체 취업지원을 하는 일자리 노력이 높게 평가받았다.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 창업지원, 소상공인 지원, 도 및 중앙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응모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남원시장의 의지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는 사랑마루에서 문화 플프마켓 꽃담장 판매자 간담회를 가졌다.

꽃담장, 융복합형으로 상설 추진

남원시, 예촌 사랑마루 문화 플프마켓 대상 간담회

남원시는 최근 예촌 사랑마루에서 문화 플프마켓 꽃담장 판매자 및 행사관계자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남원시가 추진하는 문화 플프마켓 ‘꽃담장’은 벼룩시장과 자유시장에 문화와 관광을 접목한 시대적 트렌드에 부합하는 문화 융복합형 시장으로, 4월부터 융복합형 꽃담장으로 상설화하를 기획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관광투원 방문객을 남원예촌으로 유입해 구도심권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꽃담장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참여자들의 뜻을 모으는 시간

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결과로는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즐기는 융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남원예촌 꽃담장 정착,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 참여자 중심의 운영시스템 구축, 안전한 먹거리와 질 높은 상품판매, 다양한 공연 및 테마행사 추진을 통한 융복합 문화공간 기반구축 등의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한편 이현재 남원시 관광과장은 “참여자 의견을 토대로 상설형과 축제형, 관광형 꽃담장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해 남원예촌이 융·복합형 대표 문화관광지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추진

남원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산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금년에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와 신생아 돌보기, 산후운동 등 산후조리를 돕는 사업으로, 남원시에 주소를 둔 산모는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보건소에 하면 되고, 지원기간은 1주(5일)부터 5주(25일)까지 산모의 상황과 아기의 출생 순위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용은 출산 뒤 6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남원시는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제도를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서비스비용의 90%를 지원해 산모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 남원시 산모 60%가 이 지원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로, 지원 신청이나 문의는 보건소 건강생활과 출산지원담당(☎620-7941, 620-7955)으로 하면 된다.

한편 공외수 건강생활과장은 “가정 산후조리 지원은 물론 출생 축하금 지원과 한방 난임 지원사업 등 임신과 출산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토종 미꾸리 치어

한겨울 부화 성공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우)가 미꾸리 조기채란 사업에 성공하며 3월부터 치어를 양식농가에 분양할 수 있게 되었다.

센터에 따르면 미꾸리 조기채란 성공으로 자연적인 산란시기보다 3개월 앞선 1월에 인공부화 치어를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최적의 양식 환경인 4월~5월에 치어를 입식할 수 있어 노지 양식장에서의 양식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공급된 치어는 여름철 고수온기로 월동전까지 충분한 크기로 성장하지 못해 월동 중에 폐사율이 높았다.

정의균 미꾸리육성 담당은 “조기채란 기술 확보로 언제든지 원하는 시기에 치어를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한발 더 나가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무환수 미꾸리 생산기술과 연계해 남원시 미꾸리를 연중 대량생산할 수 있는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원농업기술센터는 최근 무환수 미꾸리 양식기술로 연간 치어 3백만 마리를 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부화된 미꾸리 인공부화 치어는 60일 이상 육성한 뒤 길이 3cm 무게 0.3g 이상으로 성장시켜 분양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운영 본격화

임실군과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심민 임실군수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교수는 최근 임실군청에서 임실군 도시재생사업의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 위·수탁을 체결했다.

심민 군수는 “정부의 핵심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쇠퇴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어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재생사업이 되도록 군과 센터간에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